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골드만삭스 피소,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산 우려

- 지난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(Goldman Sachs)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후, 이를 계기로 부채담보부증권(CDO)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 -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함.
 -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사인 폴슨앤컴퍼니(Paulson&co)가 해당 CDO의 상품설계에 참여했으며 CDO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대포지션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.

- 영국의 RBS(Royal Bank of Scotland)와 독일의 IKB은행 등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이 상품으로 인해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며, 골드만삭스측은 현재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.
 - 영국 시티대학(City University)의 Chizu Nakajima는 이번 소송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, 만약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.
 - 한편,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 일요일 골드만삭스에 대한 영국 금융감독청(FSA)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, 손실이 발생한 다른 CDO와 금융기관들도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됨.

- 골드만삭스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전세계 대형은행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며,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감독당국과 정치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.
 -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은 CDO 발행에 관여한 투자은행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,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국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행해지는 경우 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 있음.
 - 또한 최근 은행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은행세(bank tax)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고 IMF와 World Bank등이 적극적으로 이를 논의하면서 투자은행들은 이번 소송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.

(Businessweek, 4/19)